



김 총리, “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” 보도 관련 설명 자료

- 김민석 총리 블룸버그 인터뷰(9.24) 내용 관련 국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-

1. 기사 주요내용

- ☐ 김민석 국무총리 “비자 문제 해결 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”
(한국경제, 이데일리 등 다수 기사 관련)

2. 설명 내용

- ☐ 9월 2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<참고> 블룸버그 인터뷰(9.24)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

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가 없고 특히나 이번 구금사태는 한국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한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.

- ☐ 또한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, 한미간 논의되고 있는 3,500억불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실	책임자	과장	김홍수 (044-200-2698)
		담당자	사무관	류준호 (044-200-2699)